

학교 급식비 횡령한 교장 복직 파문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임용 제한 시효 끝나자 복직

학교 급식비를 빼돌려 파면됐던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논란이 잠잠해지자 조용히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익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학교 급식비 4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된 후 법률에 명시된 임용 제한 시효가 끝나자마자 A교장이 복직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학교장은 모범을 보이는 커녕 아이들의 밥값을 때먹은 사람으로 당연히 학교에 복직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사결과 A교장은 지난해 1월 교원 임용이 자격이 회복된지 한달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역시 A교장의 복귀에는 부정적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콜센터는 여고생 죽음 진상조사하라"

최근 도내 한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저수지에 투신해 숨진 가운데 7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해당 통신회사 사무실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A교장은 "개인적 비리가 아닌 데도 당시 교장으로서 책임을 지던

것이고 법적 처벌도 다 받았던 만큼 복직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사업 본격화

67개 사업확정...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등 실시

전주시가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로 상호 신뢰를 쌓고, 교육과 복지,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행복 공동체를 육성하는 3차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3차년도를 맞은 올해는 참여 공동체들이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완성단계의 '희망단계'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시는 올해 온두레공동체 사업 공모에 참여한 116개 사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67개 공동체사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5

명 이상의 전주시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창업 등을 추진하는 '창업공동체' 35곳 △ 20명 이상의 마을주민이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12개 등 디딤단계 47개 공동체다.

또, 지난 1~2차년도 디딤단계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 있는 15개 공동체가 이음단계로, 디딤 및 이음단계에 참여한 공동체 중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동체 5곳이 희망단계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시는 온두레공동체 시행 3년차를 맞아 올해 희망단계에 선정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회적 경제 조

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공동체별 보조금 구성 및 세부계획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짜임새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희망단계로 선정된 '천사길 사람들' 김성국 대표는 "우리 공동체는 농촌 동 기부천사의 나눔 정신을 본받아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2년간 회원들과 함께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올해 협동조합을 창립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나눔을 실현하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대전통영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발생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오늘처럼 벌로 좁지 않은데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오히려 눈이 녹다 말아서 더 질퍽한 길 상태가 되어 차량을 미끄럽게 하여 제동거리를 길게 만들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니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알렸다.

7일 오전 7시 20분경 대전통영(장수에서 무주방향)고속도로에서 Y모씨가 승용차를 운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추돌

하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조대와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요구조자는 사고차량에서 탈출해 있었으며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처치 후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민근 기자

"시민들 건의사항 신속 처리 할 것"

지혜의 위탁에서... 완산구·덕진구 한 차례씩 진행

전주시가 '2017 지혜의 위탁'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골라지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지혜의 위탁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며 지역발전사업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완산구·덕진구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다.

시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2017 전주시 지혜의 위탁'의 후속 대책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지혜의 위탁에서 시민들은

도로·교통 관련 21건, 복지·보건 관련 4건, 재난·재해 관련 2건, 역사·문화 관련 3건, 건축·시설 관련 11건, 생태·환경 관련 12건, 기타 7건 등 총 59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시는 시민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배정한 후 최대한 신속한 처리토록 했다.

또한, 건의·제안자에게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 등을 설명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지혜의 위탁의 취지를 살려 해결 시까지 끝까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무자격 검수업무 진행한 업체와 대표 해경 검거

배에 실려 옮겨진 화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하인에게 증명하는 검수업무를 무자격으로 진행한 업체와 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무자격으로 선박의 화물을 검수하거나 이를 목인한 피의자 김씨(30, 군산) 등 3명과 관련업체 3곳을 횡만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자격으로 군산항에 도착한 화물을 검수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수업체에서 쓰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조건을 맞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건된 업체 가운데는 검수사 보유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4월 사망한 검수사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일부 검수업체에서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무자격 검수·검량사를 고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내 검수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검수·검량은 선적 화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과적을 예방해 선박 안전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자격 행위, 자격증 양도, 등록항만 외 종사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양경찰에 단속된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는 인천과 목포 등지에서 4개 업체 48명에 이른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 아파트서 현금 1억여원 도난 경찰 수사 나서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1억여원 넘는 거액의 현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아파트 6층에 거주하는 A(40)씨로부터 "집 안에 놓아 둔 현금 1억3000만원과 귀금속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평소 5만원권 현금을 상자에 담아 옷장 안에 보관했으나 이날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

장에 출동해 절도범이 남기고 간 흔적 등을 채취했다.

그 결과 배란다와 복도 등에서 수상한 족적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란대에 족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파트를 출입한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폐쇄회로(CC)TV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